퍼붓는 장맛비에… 안산 갈대습지 오염물 '몸살'

우수관로 확장 않고 인근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공사
폭우 때마다 빗물 한꺼번에 몰려 토사·흙탕물 대량 유입
수질·생태 회복 조성 취지 무색… 道 "배수시설 확대 검토"

"집중호우만 내리면 인근 공사현장에서 밀려 드는 토사와 흙탕물은 물론 오염물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9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선진안길 80-13 갈대습지 인근. 이곳에서 만난 최종인 시화호 지킴이는 하늘만 올려다 보며 망연자실했다. 이곳에는 시간당 45㎜가량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인근 경기도가 조성 중인 '세계정원 경기가든'(이하 경기가든) 건설현장에서 다량의 토사와 함께 흙탕물이 끝없이 갈대습지로 밀려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인 시화호 지킴이는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갈대습지에 비가 쏟아질 때마다 오염물질 등이 유입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갈대습지는 지난 199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상류 103㎡에 268억원을 들여 8년여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조성한 뒤 지난 2014년 4월 안산·화성시로 관리를 이관했다.

시화호 상류 3개 하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자연정화기능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다. 하지만 인근에서 조성 중인 경기가든 공사현장에선 집중호우 시 토사와 흙탕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유입돼 갈대습지 조성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기가든이 조성 중인 부지는 지난 1993년부터 수도권 8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매립된 곳이다. 경기도는 735억여원을 들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가든을 조성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했던 우수관로를 확장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와 흙탕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갈대습지로 유입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에도 이곳에서 악취를 풍기는 침출수로 추정되는 거품물이 빗물과 함께 갈대습지를 거쳐 시화호로 유입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됐었다.

도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 중"이라며 "경기가든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무너지고, 잠기고… 경기·인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30일 오전 평택시 서탄면 한 공장의 옹벽이 붕괴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왼쪽) 같은 지역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가 빗물에 침수돼 농민이 울상을 짓고 있다. 조주현기자

감염자 수 '1만명' 오르락내리락 방역 당국 "휴가철 백신 접종을"

검사건 수 4만3천84건… 신규 확진 9천595명·道 2천444명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다시 1만명 미만으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1만463명)보다 868명 적은 9천595명이다.

전날의 경우 20일 만에 확진자가 1만명대에 진입했으나 하루 만에 네자릿수로 줄어든 것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59명과 10명이며 경기 지역에선 2천44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3차(65.0%) 백신 접종률이 1차(87.8%)·2차(87.0%)보다 낮자 방역 당국이 추가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더욱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는 7천661명으로 1주일 전(17~23일)의 7천61명보다 600명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실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냈다. 이정민기자

MUST WIN COVID19
6월 30일 현황(0시 기준)

	단위:명	(변동)
경기	4,986,482	(+2,444)
인천	1,083,460	(+506)
전국	18,359,341	(+9,595)
사망자	24,547	(+10)

식약처, 항체의약품 긴급사용승인

경기·인천 '물폭탄' 피해 속출

물웅덩이 빠져 60대 1명 사망 등 495건 재난 접수

지난 29일부터 내리는 장맛비로 60대 노동자 1명이 4m 깊이의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하는 등 경기 지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30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오산·이천·안성·평택·화성 등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누적 강수량은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79.5㎜로 도내 최다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오산 260㎜ ▲성남 229㎜ ▲안양 222.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도내 풍수해 재난처리 건수(오후 5시 기준)는 총 495건으로 나타났다. 인명구조 9건, 급배수 지원 111건, 안전조치 374건, 인명 피해는 1건(사망 1명)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선 근로자 A씨(67)가 폭우로 생긴 폭 20m·깊이 4m의 물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물웅덩이는 공사장 내 터파기 작업을 해놓은 곳에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오전 9시31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선 100여대의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김정규기자

횡단보도도 건너는 20대 친 음주 뺑소니범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없이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7·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고 신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민수기자

인천서 외국인 집단 난투극… 警, 가담자 11명 모두 검거

인천서 외국인 간 다툼으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 이에 가담한 외국인 11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20~30대 외국인 10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B씨를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국적의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고 도주하려 하자 일행 9명과 함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기자